

# 구멍가게서도 1회용 봉투 공짜 안된다

환경부는 1회용 봉투·소핀백을 공짜로 제공해서는 안되는 사업장(대형마트 등)의 범위를 매장면적 33㎡ 이하 소규모 업소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환경부는 1회용품 사용규제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규제대상 사업장을 확대하고, 1회용품 판매대금의 사용용도를 명확히 정해 환경보전 활동 등에 사용토록 할 방침이다.

이 같은 내용은 폐기물관리 목표와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제2차 국가폐기물관리 종합계획(2002~2011년)'의 수정계획(2007~2011년)에 포함

## 환경부, 사용규제 소규모 업소까지 확대 추진

### 껌·담배 등 폐기물 부담금 단계적 인상

됐다. 환경부는 2차 국가폐기물관리 종합계획 수립 후 5년간 생활폐기물의 재활용률이 56.3%(2000년 41.3%), 사업장폐기물의 경우 82.8%(2000년 73.5%)로 늘어나고, 폐기물의 에너지자원화 요구가 늘어나는 등 정책여건이 변화함에 따라 계획을 수정했다.

'지속가능한 자원순환경제사회'를 목표로 수정된 종합계획은 2011년 생활폐기물 재활용률 목표를 기존 53%에서 60%로, 사업장폐기물 재활용률 목표를 80%에서 84.6%로 각각 상향조정했다.

1회용 기저귀와 껌, 담배 등 재활용이 어려운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해

부과하는 폐기물부담금도 2012년에는 실처리비용에 맞닥뜨록 2008년부터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폐기물부담금이 1갑에 7원인 담배는 27.8원으로, 1회용 기저귀는 1.2원에서 8.2원으로 오르는 등 평균 10배 정도 올라 소비자 가격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생활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해 종량제 봉투가격을 2004년 실처리비용 대비 43%(2002 기준 384원)에서 2008년 60%(540원)로 인상하며, 구별 음식물폐기물 처리수수료를 배출량에 따라 차등부과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연합뉴스

## “환율 안정위해 금리인상 신중을”

무협, 정부에 대책 촉구

한국무역협회는 수출기업에 큰 위협이 되고 있는 원화 환율의 하락을 막기 위해 단기외채 유입 억제와 해외투자 활성화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이회범 무협 회장은 9일 서울 삼성동 무역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올 상반기 수출이 17% 증가했으나 지속적인 환율하락으로 수출업체의 재산성은 9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등 도저히 더 이상 지탱할 수 없는 한계상황에 도달했다”면서 “무역흑자의 기초를 유지하면서 환율의 안정을 기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우리처럼 큰 폭의 무역흑자를 내면서도 환율 안정을 유지하고 있는 일본의 사례를 연구한 결과 우리도 단기외채의 유입억제와 해외투자 활성화 등 대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를 정책당국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무역협회는 이날 발표한 ‘환율 안정화 방안 및 금리인상 신중건의’ 자료를 통해 단기외채 유입 억제 방안으로 △외국인 투자를 통한 은행도입 단기외채의 사전 매입 △외국환안정기금 조성 및 단기외채 매입·운용 △외화화 필요한 공기업 및 대기업의 단기외채 매입 등 3개의 방안을 제시했다. /연합뉴스

## 환율↓ 기업들 채산성 나빠졌다는데...

# 주가 급등 수출 호조 ‘미스터리’

### 해외소비지출도 급증

환율이 하락하면 수출이 위축되고 물가하락으로 인해 내수가 진작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경제이론이다.

그러나 최근의 한국 경제에서는 이러한 이론을 무색케 하는 현상이 속출하고 있다. 원·달러 환율하락으로 채산성이 나빠진다고 기업들이 아우성치고 있으나 주가는 급등하고 수출은 오히려 두자릿수의 증가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

9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4분기 가계의 해외소비 지출액은 4조6천308억 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15.5% 증가했다.

같은 기간 민간소비 지출 증가율이 4.

1%인 점을 감안하면 해외소비 지출 증가 속도가 훨씬 빠른 편이다. 가계의 해외소비 지출은 주로 해외 여행 경비와 유학 연수비, 의료비 등으로 빠져나간다.

1분기중 신용카드 해외 사용금액은 14억500만달러(약 1조3천500억원)로 작년 동기 대비 34.3%나 증가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에 비해 가계의 해외소비 지출 증가율은 2004년 19.9%, 2005년 22.5%, 2006년 17.5% 등으로 가파른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원·달러 환율이 떨어지면 국내물가가 낮아져 가계의 입장에서는 소비를 확대할 여지가 커지지만 한편으로는 해외여행자의 입장에서는 원화의 해외구매력이 커진다. /연합뉴스

환율이 하락하면 수출상품의 가격경쟁력이 떨어져 수출이 감소한다는 것이 상식이지만 현실은 오히려 반대다.

6월 수출은 323억9천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9% 증가하며 월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에 비해 수입 증가율은 9.3%에 그쳤다.

원·달러 환율이 외환위기 직전수준에 근접하고 있음에도 수출이 호조를 보인 것은 수출 구조의 변화와 세계 경기여건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처럼 환율이 떨어지면 기업수익성이 낮아지고 주가가 하락해야 하는 것이 상식이지만 증시는 연일 달아오르고 있는 등 환율하락에도 각종 경제지표는 엇박자를 연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 코스피 1900들과 눈앞

코스피지수가 6일 연속 상승하며 사상 최고치 행진을 이어간 9일 서 울 여의도 증권선물거래소에서 직원들이 상승하고 있는 증시 그래프를 바라보고 있다. 이날 코스피지수는 전일보다 22.58포인트 상승한 1,883.59를 기록했고, 코스닥지수는 2.53포인트 오른 813.59로 장을 마쳤다. /연합뉴스

# 한국, 개도국서 번 돈 선진국에 준다

## 무역적자 증가 속도 對개도국 흑자보다 1.5배 빨라

선진국에 대한 우리나라의 무역수지 적자가 개발도상국에 대한 무역흑자보다 1.5배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도국에 대한 시장개척을 통해 힘겹게 번 돈을 선진국에 가져다 주는 셈이다. 9일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5월까지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 대한 무역수지 적자 규모는 100억7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33억8천400만달러의 약 3배에 달했다.

같은 기간 개도국에 대한 무역수지 흑자는 144억5천600만달러로 지난해 동기의 75억5천500만달러의 2배 정도에 달했다.

개도국에 대한 무역흑자 증가 규모가 적은 것은 아니지만 선진국에 대한 무역적자가 너무 빨리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선진국에 대한 무역적자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원인은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 대해 무역흑자가 줄어든거나 적자 폭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며 특히 일본에 대한 무역적자의 급격한 증가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적자다. 올해 들어 지난 5월까지 대일(對日) 무역적자는 126억4천800만달러로 지난해 동기 대비 21.9% 늘어났고 전체 선진국에 대한 무역적자보다 26.4% 많다.

대일 무역적자 확대는 기술·부품·소재 등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일 의존도가 높을 뿐 아니라 엔화의 약세로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은 늘고 있지만 대일 수출은 저조하기 때문이다. 또 유럽연합(EU)에 대한 무역흑자는 69억1천100만달러로 지난해 동기보다 9.6% 감소했으며 호주에 대한 무역적자는 35억3천100만달러로 50.7% 늘어났다.

캐나다에 대해서는 지난해 1~5월 5억6천200만달러 흑자였지만 올해 들어 5월까지 1천200만달러의 적자를 보여 적자로 돌아섰다. /연합뉴스

# 대우빌딩 9,600억원에 매각

## 모건스탠리와 계약

대우건설 소유의 서울역역 대우센터 빌딩이 외국계 투자 자금인 모건스탠리 부동산펀드에 국내 빌딩 거래 가격중 최고가인 9천600억원에 팔렸다.

대우건설은 서울 중구 남대문로 대우센터 빌딩을 모건스탠리 부동산펀드에 9천600억원에 매각하기로 하고 9일 매각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금액은 2004년 말 론스타가 싱가포르 투자처에 판매한 강남구 역삼동 강남파이낸스센터(옛 스타타워)의 거래가격인 9천300억원을 웃도는 것으로 국내 빌딩 거래 사상 최고다.

매각 조건에는 대우센터빌딩 리모델링 공사를 대우건설이 시공하고, 앞으로 2년간 대우건설이 빌딩 전 층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대행해주는 것을 담고 있다. /연합뉴스

## 1조원대 주식 부자 1년전보다 갑절 늘어

주식시장의 유례 없는 호황에 힘입어 1조원대 상장사 주식 거부(巨富)가 10명으로 1년 전에 비해 두 배로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현대중공업의 최대주인 정몽준 국회의원은 보유주식의 평가액이 같은 기간 3배로 급증해 사상 최초로 3조원대 주식부자에 등극했다.

9일 재계 전문사이트인 재발닷컴이 1천707개 상장사의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3천700명의 보유주식을 5일 종가 기준으로 평가한 결과, 보유주식의 가치가 1조원이 넘는 거부가 10명이었다.

현대중공업 주식 821만주(10.8%)를 보유한 정 의원은 보유지분의 가치가 3조1천444억원으로 국내 최고 주식부자 자리를 지켰다.

정 의원의 형인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은 2조7천225억원으로 2위를 차지했으며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은 1조582억원으로 3위에 올랐다.

신동민 롯데그룹 부회장(1조7천850억원)과 그의 형인 신동주 일본 롯데 부사장(1조7천127

성명	직책	5월 종가 기준 지분가치
정몽준	국회의원	31,444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27,225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	18,237
신동민	롯데그룹 부회장	17,850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17,602
신동주	일본 롯데 부사장	17,127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대표이사	12,172
김승연	한해그룹 회장	10,922
정몽진	신세계그룹 부회장	10,182
허창수	GS홀딩스 회장	10,087

(단위: 억원, %)

억원),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1조7천602억원)은 보유지분의 가치가 1조7천억원대로 었버섯했다.

이 밖에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대표이사(1조2천172억원)와 김승연 한해그룹 회장(1조922억원), 정몽진 신세계그룹 회장(1조182억원), 허창수 GS홀딩스 회장(1조87억원) 등도 1조원대 주식부자 대열에 합류했다.

1조원대 상장사 주식부자는 1년 전 5명에서 두 배로 늘었다. /연합뉴스

## 주식하락시 손실보전 합의 무효 아파트 한강 조망권 인정 못해

회사가 임직원들로 하여금 회사 주식을 인수해 하면서 주가 하락시 손실금을 보전해 보기로 합의한 것은 '효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001년 한빛은행에, 2004년 4월 우리은행에 흡수 합병된 평화은행은 1998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경영 개선명령을 받고 증자계획을 추진하면서 임직원들에게 당시 700원대인 주가를 5천원에 매입토록 했다.

대부분의 임직원들은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면서까지 주식을 매입하면서 회사와 '퇴직 시 출자 손실액이 발생하는 경우 전액 보전한다'는 손실보전 합의서를 작성했고, 회사도 자본증자 참여직원의 손실 보전을 위한 '퇴직금 특례지급기준'도 만들었다.

그러나 경영은 개선되지 않아 금감위가 결국 평화은행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선정하면서 평화은행의 기존 주식 전부를 무상소각하는 명령을 내렸고 평화은행은 임직원들이 갖고 있던 주식을 주당 166원에 사들인 뒤 모두 무상소각했다. /연합뉴스

### 대법원 판결

한강에서 '한강 조망권'을 인정받은 첫 판결로 관심을 끌었던 '리바뷰아파트 주민 소송'이 대법원에서 뒤집혀 결국 조망권을 인정받지 못했다.

대법원 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이모씨 등 서울 용산구 이촌동 리바뷰아파트 주민 18명이 한강 등의 조망권을 침해당했다며 GS건설(구 LG건설)과 이수건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한강 조망권'을 인정할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용산구 이촌동의 10층짜리 리바뷰아파트 고층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2003년 자신들의 아파트 바로 앞에 있던 5층 높이 외인 아파트가 철거되고 토지 소유자인 이수건설이 당시 GS건설을 시행사로 19~25층 높이의 LG한강빌리지 아파트를 세우자 한강을 볼 수 없게 됐다며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 의공기사·미용사 국가자격증 신설

노동부는 의료전자기능사, 의공산업기사, 의공기사, 미용사(피부) 등 4종목의 국가기술자격을 신설하는 내용의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확정,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의료기기 산업분야 자격증을 신설한 것은 이 분야 산업이 지식집약형 고부가가치 산업이고 미래전략산업으로서 양질의 고용창출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의료기기 산업분야 자격취득자는 의료기기 제조·설치·수리업체의 기술책임자, 병원의 의료기기 관리책임자, 수입업체의 판매책임자 등으로 취업할 수 있다.

또 미용 산업분야가 피부미용, 메이크업 등으로 전문화·세분화되고 있는 것을 감안해 기존의 미용사 자격을 '미용사 일반'과 '미용사 피부'로 분리했다.

아울러 노동부는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생들이 휴대전화와 MP3, PDA, 전자사전 등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를 시험장에 반입할 수 없도록 했다. /연합뉴스

## 함께 일합니다

업체명	모집분야	자격및경력	연봉(만원)	마감일	연락처
연합정보통신	포스시스템 및 신용카드 조회기관련 사원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7/11	062-366-1239
삼이엔젤	정규직 병원영양 신입/경력 사원	회사내규	회사내규	07/11	062-652-7418
정원교육문화*	[정원교육문화]친절한 정원선생님	초대졸/경력무관	1600~1800	07/12	051-465-6664
동양생명보험*	2007 하반기 생명보험 경력/인턴사원	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7/13	062-226-4904
서원기계공업*	서원기계공업* 신입 및 경력사원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7/14	062-951-0081
신성하이텍*	2007년 분야별 직원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7/14	062-952-1441
중국철강	2007년 하반기 정규직 사원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7/14	062-955-3601
대우캐피탈 광주전남지사	2007년 분야별 정규 영업직 사원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7/14	062-524-6900
GM대우자동차(남부영업소)	[전차중 판매전지정]남부지점 정규사원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7/15	062-653-0051
하나에드림	광고 실사 디자이너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7/16	062-974-0041
신안중공업*	조선 각부분 신입 경력사원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7/16	062-384-0042
광주과학기술원 과학기술융합연구소	연구원(팀장급/영역특례 전문연구원)	대학원/경력무관	회사내규	07/16	062-970-3097
도원	파리비게트 직영점 매장관리 (광주)	고졸/경력무관	1400~1600	07/16	062-381-8201
*에스테이테크유통네이션	[광주]삼성생명물센터 상담직(인바운드)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7/18	062-600-0804

(광주잡코리아 512-6210 제공)